

“성장·물가 하회... 통화정책 완화 유지”

이주열 한은총재 신년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주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흐름에 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경제 상황 판단지표 확충, 정보기술(IT)기술 활용 등을 통해 경제전망의 정도(精度)를 제고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



하나은행, 새로운 시작 행복 2020 신년 일출행사

KEB하나은행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지성규 은행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100여명의 임직원이 서울 을지로 신사옥 24층에 새롭게 오픈하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출을 함께 감상하며 새해 소망과 건강을 기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출 감상은 기존 통상적인 산행 일출 행사에서 벗어나 도심 속 빌딩 고층부에 소재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그 의미를 더했다. /하나은행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마이크로네시아 생물 전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남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추크 아일랜드

일대에 서식하는 열대 해양생물 전시존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8년 1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의 협력으로 마이크로네시아 추크 주(Micronesia Chuuk) 지역에 설립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남태평양 해양생물연구소의 열대 해양 생물 연구 및 전시 다양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롯데월드

서기 2020년, 꼭 해야 할 일 ‘투표’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서기 2020년’은 ‘과연 그날이 올까’ 싶을 정도의 상상 속 먼 미래였다. 당시를 돌아보면,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언해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일부 사이버 종교단체는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하느님의 품으로 가자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마야의 달력’에는 지구가 2012년 멸망한다고 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류가 얼마 뒤 사라질텐데 그보다 한참 뒤인 2020년이 오겠냐는 비판론이 팽배했다.

그래서인지 당시 제작됐던 영화 속 ‘2020년 지구’는 핵전쟁으로 모든 문명이 사라지거나, 로봇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지구의 새 주인이 되거나, 외계 생명체가 거대 괴물들이 인류를 학살하거나, 그도 아니면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지구의 모든 문명이 사라진다고 묘사됐다.

흥행에 실패했지만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를 비롯해 ‘미션 투 마스’ ‘지.아이. 조’ 등과 KBS의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 등이 2020년

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 영화다. 심지어 ‘블레이드러너’나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는 2019년이 배경이었다.

서기 2020년을 맞은 지금, 일부에서는 과거 상상 속 일이 현실이 된 것들도 있다. 17세기 유럽에서 최초로 지폐를 발행했던 스웨덴은 2023년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칩을 사회에 통용하기 시작했다. 인체에 작은 칩을 심어 현금대신 각종 결제에서부터 신분 확인, 건물출입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베리칩’이다. 현재 스웨덴 사람들 6000명 가량이 ‘베리칩’을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는 인공지능(AI) 경쟁이 뜨겁다. AI는 딥 러닝, 머신 러닝 등의 기법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고 있으며 앞으로 인간이 할 상당수의 일들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보적 형태이긴 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기 시작했으며 산업현장과 의료보조 등의 분야에서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나마 2020년을 맞이한 인류가 SF 영화처럼 문명발달의 부작용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된 배경에는 기술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건 각종 법과 규제 덕분이 아닐까 싶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국회와, ‘복지부동’의 철학을 암묵적으로 공유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 제20대 국회는 우리나라를 아직도 4년 전 시간으로 붙잡아 놓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국회와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달리지 못하고 도록 기업인들의 발목을 굳건하게 잡고 있다. 한계를 모르는 기술 발달을 막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그만 두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시간을 붙들어뒀으면 충분하다.

이제는 시계를 제대로 돌려놓아야 할 때다. 당장, 올해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지금의 20대 국회가 끝나고 새로운 국민의 대표들이 뽑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할 각종 공약과 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20세기를 살고 있는 20대 국회가 21대를 맞아 21세기 마인드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2020년부터는 ‘선진 정치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가져보자. 일단 국회부터 21세기에 걸맞도록 바꾸고, 그 다음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가야 할 ‘서기 2020년’이 되길 바란다.

/산부팀장 yjh@metroseoul.co.kr

김준 총괄사장, 현장 찾아 근무자들에 감사인사

SK이노베이션 새해 첫 행복토크

SK이노베이션이 새해 첫 행복토크를 진행했다.

SK이노베이션은 김준 총괄사장이 경자년 새해 첫 날 SK인천석유화학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일일이 격려하는 한편 행복토크를 통해 기업경영의 가장 큰 목적인 행복추구를 강조했다고 1일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새해 첫 날임에도 근무를 한다. 이날 행복토크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SK이노베이션의 성장전략인 그린밸런스와 구성



1일 SK인천석유화학을 방문한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가운데)이 현장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원 행복추구 모두를 해내자는 다짐도 했다.

특히 김준 총괄사장은 조정실, 출하실, 부두 등 주요 시설 및 근무지 외 단 한명의 구성원이 근무하는 현장까지 찾아가 새해 덕담과 함께 연말·연휴·연초까지 쉬지 않고 안정 조업과 내수·수출제품 공급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했다.

이어 그는 오찬을 겸한 새해 첫 행복토크를 통해 “작년 한해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 냈고 정기보수를 통해 역대 최고 경쟁력을 갖춘 파라자일렌 생산기지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인사

- ◆ 동양생명 ◇임원 선임 △상무 이동수 ◇팀장 승진 △정보보호팀장 임현섭 △팀장 전보 △CPC기획팀장 류재용 △경영기획팀장 황문경
- ◆ 현대해상 ◇전무 승진 △기업보험부문장 한재원 △개인영업부문장 김상완 △AM영업부문장 이경식 △CPC전략부문장 이용국 △상무 승진 △장기상품부문장 박성훈 △법인영업부문장 서호수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박재원 △자동차보상부문장 이재열 △다이렉트영업부문장 이운기 △리스크관리부문장 윤민영 △디지털전략부문장 정규완 △자산운용2본부장 전경철 △CISO 김재형
- ◆ 현대C&R ◇상무 선임 △콜센터사업본부장 유중수
- ◆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대표이사 이상재 ◇상무 선임 △콜센터본부장 홍의환 △지방권차량본부장 김경민 ◇임원 전보 △수도권차량본부장 장인수
- ◆ 현대HDS △대표이사 고해룡 ◇상무 선임 △SM본부장 이광용
-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 한성조 ◇상무 선임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경

- ◆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대표이사 오석주 ◇상무 선임 △경영지원본부장 주찬홍 △지방권손사본부장 이진완
- ◆ 조선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강훈 ◇편집국 △사회부장(부국장대우) 조중식 △국제부장 최원규 △사회정책부장 이진석 △교육전문기자 안석배 △CS본부 △부분부장 겸 CS총괄팀장 심형권 △CS마케팅팀장 이용찬 △CS메트로팀장 김형철 △CS내셔널팀장 조계강
- ◆ 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 △광고사업 부분부장 한정희 △광고국장 겸 광고데스크 겸영택 △광고국장 이상재 △사업국장 구명서 △AD비즈니스팀장 최명기 △AD비즈니스팀장 이주형 △AD마케팅팀장 서주환 △사업기획팀장 김성원 △S&P팀장 고일권 △중앙일보플러스 JMAP 광고부문장 박창준 △신사업국 △신사업국장 정경민 △뉴스제작국 △뉴스제작2팀장 김주영 △뉴스제작3팀장 김진일 △마케팅솔루션본부 △마케팅솔루션팀장 이형강 △솔루션영업팀장 민준식 △뉴스플랫폼팀장 △뉴스서비스실장 정진환 △기획2팀장 김유리 △개발2팀장 강희훈 △개발3팀장 김병주 △대표직속 △일본지사장 신동화 △비즈니스플랫폼팀장 김세진 △중국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신경진

- ◆ JTBC ◇보도총괄 △보도부국장 겸 뉴스제작에디터 배원일 △정치에디터 김성택 △경제정책에디터 조민근 △탐사주말에디터 김준솔 △디지털에디터 이승녕 △정치팀장 남궁욱 △국제외교안보팀장 안익근 △정치부회의팀장 박성태 △정책팀장 유상욱 △산업팀장 이태경 △소비자생활팀장 구희령 △주말취재팀장 조민중 △뉴스커넥트팀장 김백기 △디지털뉴스팀장 김한별 △스포츠문화팀장 오광춘 △탐사기획팀장 손용석 △뉴스제작1팀장 이세영 △뉴스제작2팀장 이정현 △뉴스제작3팀장 정상경 △보도제작1팀장 이영배 △보도제작2팀장 송원섭 △보도제작3팀장 전용우 △탐사취재팀장 정용환 △제작총괄 △애능국 특임CP 윤현준 △애능국 1CP 성치경 △애능국 2CP 김형중 △애능국 3CP 김수아 △애능국 4CP 황교진 △애능국 5CP 김미연 △애능국 6CP 김은정 △엔터콘텐츠운영팀장 김유석 △엔터콘텐츠기획팀장 한아람 △채널사업본부 △영업기획팀장 윤영준 △영업팀장 박유현 △편성실 △편성기획팀장 양지영 △편성팀장 이유림 △브랜드실 △브랜드실장 겸 브랜드디자인1팀장 김혜진 △브랜드디자인2팀장 채주용 △브랜드디자인3팀장 김은호 ◇경영지원실 △경영기획팀장

- 박준석 △총무팀장 김해남
- ◆ JTBC플러스 ◇트렌드부문 △스튜디오Live 사업본부장 배경민 △스튜디오닷컴본부장 김은정 △스튜디오닷컴본부사업국장 광도훈 △엘르BU 엘르사업팀장 정명동 △엘르BU 엘르편집팀장 채은미 △엘르BU 엘르기획팀장 배상현 △코스모폴리탄BU 코스모폴리탄사업팀장 유상규 △코스모폴리탄BU 코스모폴리탄편집팀장 박해수 △코스모폴리탄BU 코스모폴리탄기획팀장 김서희 △에스콰이어BU 에스콰이어사업팀장 김재원 △에스콰이어BU 에스콰이어편집팀장 민병준 △에스콰이어BU 에스콰이어기획팀장 박정운 △바자BU 바자사업팀장 임용규 △바자BU 바자편집팀장 조세경 △바자BU 바자기획팀장 채윤영 △비주얼팀장 이영란 △유통&커머스팀장 우광채 △스튜디오Live사업본부 Live Ex팀장 임은정 △스튜디오닷컴본부 스튜디옷2팀장 김중학 △스튜디오닷컴본부 스튜디옷3팀장 박경희 △경영기획팀장 김승환 △인사팀장 박원영
- ◆ JTBC미디어텍 ◇영상편집팀장 김황주 △뉴스디자인팀장 오영관 △영상취재팀장 이주현
- ◆ 조인스중앙 ◇문화사업부문 △스포츠·이벤

- 트팀 팀장 진정현 △뉴스비즈니스 팀장 안유림 △WIDE 팀장 이소정
- ◆ 아시아투데이 ◇선임 △부사장 정규성 ◇승진 △편집국 경제부장 부국장대우 이규성 ◇전보 △편집국 뉴미디어부장 겸 국제부장 진현탁
- ◆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총괄이사 임미령
- ◆ 시사저널이코노미 △시사저널e편집본부 편집국장 이사대우 조영훈
- ◆ 뉴스프리존 △편집국장 한운식

부음

- ▲ 광라영(전 삼흥산업 대표)씨 별세, 광복의(전 TBC 대구방송 이사)·우진·충철(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명예교수)·동훈(전 쓰리엠 미국 본사 본부장)씨 부친상, 남봉우(남외과의원 원장)씨 장인상, 광정렬(외교부 정책기획담당관 실 서기관)·석렬(우아한형제들 변호사)·창렬(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준렬(포스코아메리카 과장)·정민(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부부장)·예진(제미약사)씨 조부상 = 31일 오전 2시 28분, 대구 모례야장례식장, 발인 1월 3일 오전 8시, 053-801-9999